

오늘 날 시대의 창조물은 우리가 운동 투쟁적인 시간들과 사망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온 세상은 소동하고 있다. 우리의 눈 앞에서 예수님의 피름이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7.12와 12의 소동을 들었으니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있어야 하되 곧은 야적 아니니라. 권력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치에 기본과 자신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년의 시작이다(단 2:4-8). 우리 앞에 막힌 현재와 미래는 대단히 흥미있다. 사람들은 더 고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으며, 온 세계가 위대한 위기의 가장자리로 다가가고 있음을 일깨운다. 신문화 미디어들의 뉴스는 매일 여러가지의 참사와 폭력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께서는 세상 마지막에 대하여 예언하시기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위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엔 관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라 이는 하늘이 곧들이 흔들리겠음이라"(누 21:25-26)고 하였다.

위대한 세상 제국에 관한 놀라운 예언

성경,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는 과거와 현재의 많은 사건들에 대한 웅변한 예언들이 예언되어 있다. 이 책들은 주의 끝 연구하면 세상 나라들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인간의 삶에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운다.

2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은 세상 나라에 위대한 제국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나라들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서, 현재의 유럽으로 알려진 나라이다. 꿈에서 다니엘은 큰 존경을 받았는데, 그 신성의 모든 각 부분은 이 세상에 정복하게 지어질 일어난 왕국들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 이상의 미래는 종국에야 가슴과 팔들은 온이오 배와 넓적다리라는 뜻이오 그 손아래는 짐이오 그 발은 열매는 열이오 열매는 짐승이였(단 2:32-33). 그리고 그 위대한 제국들과 그 왕국들의 독특한 특징들은 선지자 다니엘이 그 짐승으로도 상징되어 계시로 보였었다. "1 네 큰 짐승은 네 왕이요, 세상에 있어는 것이로되..."(단 7:17). "대 열이로 짐승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이성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위가 큰 바다로 돌러 돌리니"(단 7:2)라는 구절에서 "물"은 "백성, 사령, 국가들, 영인들을 상징한다고 다니엘 7:15에 나와 있으며, "백성"은 "정쟁"을 뜻한다고 예레미야 4:11-12에 가리키고 있다. 큰 바위로 돌러누는 하늘의 네 바위는 한 번 나라들에 의한 누치된 성복을 가리킨다.

세계적인 특별한 세력

선지자 다니엘은 유럽에서 또 다른 세력이 돌러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 불을 유상하 보는 줄 다른 작은 불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 먼저 불 중에 있어 그 안에 뿌리까지 불렸으며 이 작은 불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곧 말을 하였" 나리"(단 7:8). 이것은 작은 불의 세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이 세력은 홀로 세계에서 나온다 (단 7:8).

이 작은 불은 10개의 독립 종족 중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교황권의 세력(AD 509)을 말한다.

2. 세 불을 품어내리라(단 7:8).

예루살렘, 반달, 오스트로고스 제나라가 이 "작은 불"의 세력이 강했었다. 뿌리채 뽑혔다 - 위치가 파멸된 것을 말한다.

3. 이것은 그 권의 불과 다르다(단 7:24).

교황권은 다른 세력이었다. 이 세력은 교황과 종파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가 지배적이 된다.

4. 이것은 다른 불보다 더 강하다(단 7:20).

교황권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적인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온속 시대"중, 사람들은 천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다. 심지어 유럽의 왕과 황제들조차도 여러 세기 동안 교황권의 결정에 겸손히 복종하도록 강요받았다.

5. 이 세력은 침묵한 일을 한다(단 7:25).

"그가 스스로 시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단 8:25). 교황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비복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의 사람 곧 왕의 아들아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순명함을 받는 자 위에 었어 자존하여 하나님께 있어 자기들 보며 하나님이라 한다(살후 2:3-4). 이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세력,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세력의 사람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구들은 교황권이 얼마나 곧 하나님께 대하여 항만인 일을 하는지 보여준다. "이 지구에서 우리는 선능하신 하나님의 지리를 대항하고 있다"(백과사전, 교황 레오 13세, 8-20-1894). 교황을 "거역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침묵한 일이다.

예수님은 권고하시기를, 마 23:8에 "말에 있는 자들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많은 교황들이 수백년 동안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계 15:4) 무류성을 교황에게 적용시켜 "교황은 교회를 버릴 수 없다"는 교황무류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만이 기지할 수 있는 권한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눅 5:24).

6. 이 세력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핍박하고(단 7:25).

교황권은 종교 박해시대에 스웨덴인들(천주교의 고리를 믿지 않는)들을 처리한다는 명목 아래 종교재판소를 세워 수 많은 신성한 성도들을 립박하고 화형시켰다. 역사가 W.H Lecky는 말하기를 "이 지구 상에 존재하는 어느 집단도 로마의 교회가 불리게 한 순결한 성도들의 피보다 더 피를 흘리게 한 집단이 없으며, 이것은 역사에서 아무도 부인



바빌론

골라몬의 사지(사지는 바빌론의 상징으로 땅이 서양;는 바빌론 제국을 가리킴(BC 605-538 BC). 독수리의 날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성한 장복을 나타낸다.

페르시아

BC 538년에 메디와 페르시아라는 한 왕의 두 왕국이 일어났. 동쪽 일대 돌린 세 강이라는 징표 한 세 나라 라디아, 비벨론과 이집트를 말한다. 페르시아는 메디라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었다(이것은 꿈이 그의 왕의 번영을 늘인 것으로 풀선했).

그리스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의 매우 신속한 정복과 승리는 그리스를 세계에서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리스는 네 강군에 의해 트라키스,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와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네 마리 짐승).

로마 제국

BC 198년, 나뉘어 왕국으로 로마가 등극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로마의 대항할 수 없는 영향력 진인국 정복은 그 나라를 "철의 왕국"으로 불리게 했다(우상의 철 막과 직물의 철이 철을 참고한 것).

유럽

게르만족의 다 이족(AD 351-476) 때문에 로마는 유럽의 작은 열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열 불꽃 열 불꽃의 불꽃). 철과 직물이 섞인 열 불꽃은 철과 직물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열 나라로 나뉘어 공존하는 연합된 유럽을 뜻했다.

단 7:1 "첫째는 사지와 라디아는 우리의 눈가리 있다"

단 7:5 "다른 짐승 곧 물레는 금과 같은데 그것이 풀 라틴을 뚫었고..."

단 7:8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단 7:7 "네가 짐승은 무서고 늘 라틴에도 귀여워하며 또 큰 힘이 있어서 먹고 부셔드리고..."

단 7:24 "그 열 열이 나라"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의 광범위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해시대의 수는 대략 5천만이며, 그들이 당했던 고통을 표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다." (*Rationalism in Europe*, Vol. 2, p. 32).

7. 이것은 내와 밤을 번갈고서 한다 (골 7:25).



교황권은 오랑주제도 하 나의의 말을 변경했다. "천 주교 교리문답"에 보면, 그들은 십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을 배배했는데, 둘째 계명은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십

계명 중 나머지 계명, 곧 성경에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신 안식일(토요일)을 이방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의 일요일로 변경해 버렸다. 그로 하여 하나님의 둘째 계명에 명시된 율곡제 날인 안식일 (출 20:8-11, 사 58:13-17) 내신 성사적이지 않은 일요일을 육식의 날로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의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하신 적이 결코 없었으며, 예수님과 여러 사도들도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다 (골 4:18, 마 24:20, 행 13:42-44).

8. 이 세례 안의 피와 두레와 한 마디를 다스린다 (골 7:25).

성경에서 시간을 계산할 때, "년"은 1년, 곧 365일로 계산을 하는데, 예전엔 1일은 1년을 가리킨다

(골 4:6, 민 14:34). 세 피와 한 피는 3년 번이고, 3년 번 = 1260일이다. 그러므로 "죽은 불"은 1260년을 다스릴 것이었다. 이 기간은 AD 538년, 제스티니안 황제가 칙령장부(우교교회의 개혁)를 폐지한 것을 승인한 칙령)을 내린 때와 그리고 동교는 영국 의 최후의 칼럼부터 시작하여, 프랑스에 의하여 로마가 공화국이 되고,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의 군대에 게 포로로 잡힌 1798년까지 이어졌다.



심판의 시간

"그러나 심판이 시작될 때..." (골 7:26). 다니엘은 "영광과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산 이가 확정하셨는데 그 곳은 희기가 높고 그 머리로는 깨끗한 양의 눈 같고 그 보좌는 돌운이요 그 바치는 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밑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밑에 서있는 자는 만민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명이 퍼 놓" (단 7:9-10)의 것을 보았다. 선지자는 크고 연속한 때, 곧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심판을 받는 때에 관한 계시를 보았다.

성경은 "책들이 베풀었다"고 말한다. 시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설명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니 내가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라고 했다. 하늘에 있는 기록에는 사자들의 이름 (골 10:20)과 행위 (골 12:36-37)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의 기록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모든 사자들의 보답스러운 목적과 동기들이 그 기록에 정확히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해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실 것인지 더, "그가 간추린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고전 4:5),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심판 때에 기록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은 믿은 모든 사자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면자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구 상에 있는 사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자의 이름이 불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서술되 검토된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어떤 이들은 개성한다. 누구는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초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성경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생애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반진하던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 32:33)고 선언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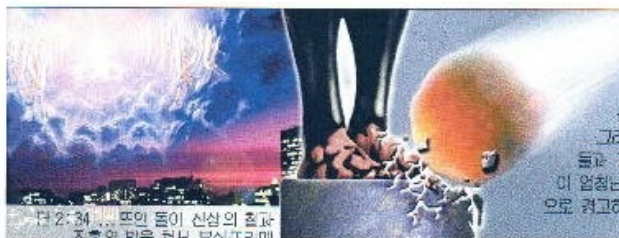
또한 기록책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민 우리에게 먼저 행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날" (골 4:17)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각 세대마다 차례로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자들과 같은 것으로 심판을 끝낼 것이다. 모든 사자의 이름이 불러워질 것이다. 모든 사자의 경우가 자세히 조사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기뻐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개성할 것이다. 모든 사자들의 몸과 생애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자유의 용병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믿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골 2:12)고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자가 남아 있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속죄는 말씀하시기를, "...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골 2:33)고 하셨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 28:13)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의 속죄제물로 주장하는 사람은 (행 16:30-31) 하늘의 책의 그들의 이름이라 "들려 받았고"라고 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외에 책에 없는 자가 되고 그들의 몸과 하나님의 용병과 조종된다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망치고 그들 자신이 완전한 생명을 받기에 회개한 사자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나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사 43:26)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특별 때에 대해서, "인간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호리" (요 5:29), 심판

4:14-18)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가는 자는 이와 같이 회개할 일을 것이요 내가 그 마음을 생생책에서 반드시 흐려서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전사를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5)고 하셨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류를 위하여 드리는 그리스도의 증언은 (행 8:1) 선지자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히 9:24).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좌 가는 일을 받으셨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과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와 보좌 앞에 참되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 밖의 순교 상치된 용으로 우리를 위해 용서받으셨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다. "내가 온데가 내게 속하느니라" (루 12:9). "나는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는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내게 배우라" (요 17:1)와 "내가 온데가 내게 속하느니라" (요 17:29-30).

우리의 양심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로 믿음이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의 철과 죄책감과 죄의 참회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지평에 다다른게 된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것과 우리가 죄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는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는 부패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오기 싫고 죄로 가득차 있는 것을 깨닫고 구주의 용서와 회개와 순결,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과 조종으로 이루어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서는 확신과 하늘의 용서와 평안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혼란과 견제와 지혜로운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선택으로 이것들을 가지 주신다. "돈 없이 값 없이" (사 55:1)... "만일 우리가 손을 뻗어 그 구원의 선물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 너희 자기 주종할 때까지도 눈과 같이 화려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 때까지도 양털 같이 되리라" (사: 18)고 하셨으며, 또 "제 영을 나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골 3:10)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영혼치 못하니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할 때에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된다 것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으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렘 13:13, 행 2: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을 이루시키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을 우리 안에 성취시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보신기 되실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행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면자가 있으나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복 제물이니 우리가 유죄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요일 2:1-2).



계 2:34... "또한 돌이 산악의 집과..."

마지막 자비의 기벌

선지자 다니엘은 그의 계시에서, 사자들이 유죄로 세계를 서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세상이 제왕들과 정쟁들이 인연해질 때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와서 이 세상의 왕과 목을 산화시켜 버뜨는 것을 보았다. 이 큰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 강림을 의미한다 (단 2:34-35, 44, 사 18:32). 그리스도께서는 곧 전사들과 구원을 받고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다 (계 7:7) 우리 인류들이 이 엄청난 사건의 예수재림을 위하여 잘 준비되고 심판 날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자비의 경고의 기벌들은 요한 계시는 14:8-12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신성한 사리가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과 만드신 이들 경배하라 하더라"(계 14:7).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하늘의 심판의 사리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곧 1798년 이후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의 현 시대는 심판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교단 진화론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질서를 부각 하셨다. 우연의 선택,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 창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롬 1:20-21).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생물을 주시는 시이치이심은 우리가 깨달아 마땅히 창조주께 드려야 할 사랑과 경배를 드러기를 원하신다. 천년 사랑과 경배한 하나님의 기쁨을 지니는 것을 뜻한다(심계경은 롬 20:1-17에 나와 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사랑이 귀를 놀이하고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해라"(요의 5:3, 산 28: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삼계법을 통하여 인격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인

신계명 중에서 네째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가르치고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날 공약은 황폐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새 계명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이는 옛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새 질음을 취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이 네째 계명은 열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법을 주신 주의 이름과 지위와 영도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안식일은 모든 인류들을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있다(창 2:1-3). 안식일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감사와 사랑을 드릴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뜻이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때

다 이것이 나의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출 20:20, 시 56:2, 출 31:13-17). 세상이 시대를 때부터 주일 중 일째 날인 안식일은 토요일로 준수되어 왔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율법성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을 하러 왔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사가 와서 전하는 율법의 율법 율법이라도 반드시 없이 오지 아니하고도 이르리라"(마 5:17-18).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이로 이르되 두려워하라 큰 성 바벨론이아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막았던 자로라 하더라"(계 14:8).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은 "종잡"이란 뜻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여러가지 형색의 거짓된, 혹은 배도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 계시록 17:4-8에 보면 바벨론은 음녀라고도 언급되어 있다. 성경에서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가리킨다(렘 3:20, 골 16:35 참조). 계시록 17장에 나타났던 이 음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 여자는 자주 보라 붉은 보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와 결혼을 하였는데, 가솔한 들과 그와 음행의 데려온 것들이 가득해라. ... 이 음녀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바빌이라. 큰 바벨론이라. 용의 음녀들과 가솔한 것들의 여리라 하였더라." 선지자는 또 "그 여자가 '성도들과 교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 취향'(계 17:6)것을 보았다. 바벨론은 '큰 성' 혹은 세계 일대였는데, 9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종의 활동들 디스리다(기 7:18).



바벨론의 비밀

일곱 산 위에 있어 있는 이 바벨론의 세력은 '누미 교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보라색과 붉은색은 로마 천주교회의 추기경과 직관들을 대표하는 색깔이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는 뜻은 교황권의 부를 의미한다. 이 로마 천주교 이외에 어느 교회의 세력도 다음의 성경적 '성도들의 피해 취향'이라는 기술에 들어맞는 단어가 없는데, 그리스도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을 모미교회는 쓴책한 방법으로 핍박한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벨론의 큰 죄악은 바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막'인 죄이다. 음녀가 전하는 세상을 취하게 하는 잔은 거짓 가르침과 - 식사, 영혼구원, 영원한 지옥, 성도 미러에 종배, 일요일 신성화 등을 가리킨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렇게 성경과 맞지 않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통하여 세상과 교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경고는 예언에는 손꼽힐 정도로 지금도 부활된 모든 종교단체들을 말한다. 이것은 로마천주교회적 적용시킬 것이 아닌 이유는 여러 시기 동안 교회들은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음녀의 여리라"고 불리운다. 음녀의 율법은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들(예를 들어, 일요일 신성화 등)과 그 모본을 따르는 교회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바벨론(종잡)이라는 단어는 이런 교회들에 적절하게 적용된다. 이런 영적인 악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아직도 존속하는 이유는, 그 속이 아직도 많은 수의 그리스도들을 모르는 참 지니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기별과 '큰 백성이 거기서 나오리라'는 천사의 경고의 기별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마침내 그들의 배도한 교회를 떠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이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계 14:9-10).

이 경고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상징들을 풀어야 한다.

짐승

여기에 언급된 짐승은 이미 계시록 13:1-10에 '고블렘'은 짐승'으로 언급되었다. 이 '짐승'과 단 7장의 '작은 뿔'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둘 다 정확하게 같은 서적, 고블렘이라고 불리우는 서적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뿔'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은 삼왕권 2책(계 13:7)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계 13:2) 세력이며, 이교 부파를 핍박한(계 13:2), 1260년 동안 디스리(계 13:5) 세력이 다. 로마 후 이 짐승은 '죽게된 상처'로 인해 그 세력이 사그라진다(계 13:3, 10).



그러나 이 '죽게된 상처'가 낫게 된다(계 13:3). 이 고블렘의 상처가 나야 그 군세가 회복될 일은 1929년에 있던 '라테라 조약'이 체결을 한 후이다. 그 때 비티리온 소유권과 세속적인 후원과 독립된 국가로서의 외교적인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그들의 외교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후으로 비티리온 내사서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불행한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죽게된 상처'가 나야 된 것이었다.



'경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제 13장에 기술된 또 다른 짐승의 서적에 대해 알아야 한다.

두번째 짐승

선지자 요한은 계시에서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와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두번째 짐승은 '뿔'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서 올라왔지만, 이 짐승은 짐승이 올라온다. 다른 서적들을 색고 올라오는 세력과는 달리 이 국가는 서서히 평화롭게 올라와서 사라진다. 이 나라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패는 다르다. 이것은 서부 대륙에서 찾아야 한다. 1798년, 교황권이 세력을 잃었을 당시 한 국가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미국이다! '새끼 양 같은 뿔'이 상징하듯이 젊고, 순수하고, 단순한 성격은 미국의 열려의 특징과 꼭 맞는다. 시민과 종교적 자유(두 뿔이 상징하는)는 이 국가의 건국이념이었다. 교황권에 의해 핍박을 받은 수백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세계'인 미국으로 도망해 왔다.



이것이 미국의 탄생이다. 그러나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 그리고 첫번째 짐승(교황권)이 한 것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뛰어들게 된다. '자기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

배하게 해... 땅에 거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함께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성을 만드라 하
더라"(제 13:11-14)

세계적인으 용재는 믿힌다는 것은 미국이 광복
하는 공언과 함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전혀 상반되
는 것을 상징한다. "말한다"는 의미는 두가지 사법
적, 그리고 행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한다는 의미이
다. 이런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그 나라의 권국
이념이었던 평화와 자유의 원칙을 반박하게 되는 것
이다. "용재된 말하고" "자들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
는 것은 미국이 자들 짐승의 교황권이 행하던 대르
빈대하고 광박하는 전신으로 변할 것을 예시하고 있
다. 신승이 누 밭을 가짓하는 것은 "땅에 거리는 자
들로 처음 짐승에게 광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이 권세를 가지고 순종을 강요하여 교
황권이 거 권세를 표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우를
본 우리는 미국과 나란히 이 그들의
영향력을 증거하
거 다치기 위하여
알다나 말장하게
서로 인형하여 일
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할 수 있다.



짐승의 우성

자- 교회가 복음의 단순성을 떠나서 이렇듯 종교
이식과 권세를 받아들였을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되
었고 순영과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교회는
사람들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권력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는 국가에 의해 통
제 되었었고, 그것이 교황권이 생겨는 결과를 낳았으
며, 이 세력은 국으로 치들어 나중에는 아담을 처리
한다. 영도이러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
게 하였던 것이다. 미국이 짐승의 우성을 세우기 위
해서는 종교 세력이 정부를 통제해야 하며, 교회는
예치하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
력을 빌려우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배도이며,
노 주나 교회가 정부 세력의 모방을 구하므로 교회
권. 곧 짐승이 출현하도록 인도한 것이다. 시도 니콜
은 이 "짐승"에 대하여 역증하기를, "... 먼저 배도하
는 일이 있고 저 불쌍한 사람 곧 양양의 아들이 나타
나... 그리고(산후 2:3-4) 말았다. 그의 똑같은 방
범으로 모든 남의 개신교회는 배도하여 짐승의 우성
을 만드는 길을 추구할 것이다.

지난 십여년 간 개신교인들이 종교를 연합하기 위
해 "종교 연합 운동"에 들어는 노력은 점점 증가되어
"여왕 광을 지리나라는 연합"이라는 사상 대대 성서
적인 전리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 말을 이루어
고 하고 있다. 1999년 10월, 바티칸과 우리교회



교회가 전무한 결정을 사방들에게 강요하도록 연합
을 줄 것인데, 그럴 때에 미국의 거신교는 루다 천주
교 체제의 같은 "우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일
역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할말이나, 발음은
가하므로 그 사람들은 처형적인 아러는 결과를 당하
게 될 것이다.

짐승의 우성은 결과적으로 배도한 개신교가 그들
의 종교를 신앙하고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정부의 힘을 빌리는 것을 가리킨다.

짐승의 표

"두 볼 가진 짐승(미국)은 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백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로 그 오류수에서 아담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배배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아담이다. 그 아담의 수만"(제 13:16-17).

"지배가 여가 우성" 총영 있는 지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나 육백 육십 육이
니라"(제 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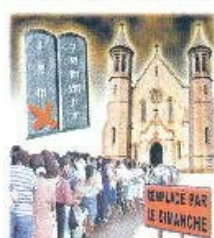
천주교 교황(적그리스도)인 체제의 가장 우두머
리는 교황이다. 교황의 공식적인 지위의 이름은
"VICARIUS FILII DEI" 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
나님의 아들의 대리자"(Our Sunday Visitor 1915,
4:16)라는 뜻이다. 대리자는 각 문종마다 숫자를 가
지고 있다. 이 공식적 지위의 호칭의 글자의 수를 계
산하면 짐승의 수인 666이 된다.

V	=	5	F	=	6	D	=	5
I	=	1	L	=	1	I	=	1
C	=	100	L	=	1	I	=	1
A	=	0	L	=	1	I	=	1
R	=	0	L	=	1	I	=	1
I	=	1	L	=	1	I	=	1
U	=	5	L	=	1	I	=	1
S	=	0	L	=	1	I	=	1
								666

합체 "교리 공동 선언문"
에 재언하으로 루다교회
세계연합회에서는 종교가
학의 무효화를 선포했다,
그러므로 "종교연합운동"
이란 어구것도 아니고, 서
드 배음이 배설무니가 주
세에 예언한 교회의 영적
인 배도의 본이다. 미국의
교회들이 서로의 공통 교
리들을 중심으로 연합하
자는 의도 아래 함께 구일
때,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교회가 전무한 결정을 사방들에게 강요하도록 연합
을 줄 것인데, 그럴 때에 미국의 거신교는 루다 천주
교 체제의 같은 "우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일
역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할말이나, 발음은
가하므로 그 사람들은 처형적인 아러는 결과를 당하
게 될 것이다.

짐승의 우성은 결과적으로 배도한 개신교가 그들
의 종교를 신앙하고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정부의 힘을 빌리는 것을 가리킨다.

대한 묘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형들에 대한 설
명을 보자, "영도들의 인내가 여가 있나니 저희는 하
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
14:12). 결과적으로 총영 경배와 거짓 경배 사이의
권력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한 쪽의 무리는 하나님
의 인-도요일 안식일 - 제4 계명의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반대 쪽의 사람들은 짐승으로 표,
일요일 신성성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천주교는 이를
자신들의 "권위의 포교"고 말하는데, 그들의 기원 후
364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렸다(The
Converts Catechism, P.Gieirmann).



누구든지 천주교가
나한 것인지를 알면
서도 이 적그리스도
의 체도가 무슨 거짓
가임을 지키는 사람
은 하나님의 반대편
에 서는 것이다. 그
러나 여러 교회의 신
실한 사람들이 일
일을 지키면서 자신
들이 하나님을 내치
가임을 지키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전성된 의도와 정직
성을 수용하시는데, 오히려, "말지 못하면 시몬은
는 하나님은 허락치 아니하시" (제 17:30)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미국에서부터 밀요령이 세 세기 질서 차
원으로 되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법으로 강요될
때에, 이 1 세대가 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
고, 그 회이 하나님의 반을 고역적으로 반대하는 것
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의 은혜를 더 이상 기



대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수의 형
벌의 경우와 축복을
선고 받을 것이다(제
14:9-11). 인류를 중
교적, 정치적, 경제적
의 면과 실재 현실적
으로 통치하기 위하
여,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의 정부와 교회
합의회의 의해 수년
전에 벌써 모든 계
들이 마련되었다. 이 "새 세계 질서"라고 부르는 단
계의 목표는 "말의 정부 아래" "세계 종교"(비 성서
적인)를 정초하려고 하는 것이다. 종교 연합운동단
체는 정부기관들을 대표하는 남인 사상을 배 내니 이
개혁이 범세계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전문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역시
예언'이라는 책을 받아보기 권하는 분
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공부하는
성경 연구' 과목들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
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 우편번호 755-800
경북 봉화군 봉화 우체국 사서함 4호
e-mail: sostv@korea.com

미국 : Light For Life, Inc.
P.O. Box 300
Franklin Springs, GA 30639
c-mail: editor@sostv.net
www.sostv.net

당신의 결정은?

예수님께서 재탄하실 때까지 시간들과 재산들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
것 말고 약한 세상은 곧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저들을 아-대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아-대
사랑하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에는 쓰여있다 (산후 2:4, 요 3:16). 하나님
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이 세상과 대
스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셨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니 이전 것은 기억도커니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무릇에 받았신 이와 거라사내 무라 내가 만물을 새
롭게 하노라"(사 65:17, 제 21:4-5). 이 성경말씀들은 미래의 소망
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안과 안정을 준다.

지금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곧, 얼마나 빠른지 모르지
만 아주 곧, 각 개인의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성경은 "오늘날 너희가 그
의 음성을 듣거든 노심삼를 격동하여 회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
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히 3:7-8)고 말한다. 조사심판이 끝날 때, 우리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복혜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고 자탄하시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끝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에게 영광스러운 새로운 미래를 보장해주시기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모든 당신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므로 그분 위에 나눌 수 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
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에서 당신의 증보자가 되실 것이다!